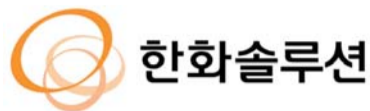


# 김동관의 선택과 집중... 에너지 사업 다각화 1억달러 투자

(한화솔루션 대표이사 사장)



美 스타트업 랜시움社 지분 인수  
IT 기반의 전력 운영 노하우 확보  
재생에너지-데이터센터 결합 등  
美·유럽 대상 신사업 발굴 재검열



김동관 한화솔루션 대표이사 사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근차근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김동관 사장이 유일하게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한화그룹 계열사로 자신이 직접 육성한 태양광사업뿐 아니라 화학, 첨단소재 등을 하고 있다. 전략부서는 미래 성장동력 등 신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역할로 친환경 사업과 미래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미국과 유럽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업 다각화를 위해 정보기

술(IT) 기반의 전력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재생에너지와 데이터센터를 결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관리 스타트업에 1억달러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위치한 랜시움에 1억달러(약 1200억원)를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투자로 랜시움 이사회에 의석을 확보해 향후 경영에도 참여

할 예정이다.

랜시움은 지난 2017년 미국 벤처 투자자인 마이클 맥나마라(Michael McNamera)가 설립한 전력 관리 전문 기업이다. 대대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 한화솔루션 등으로부터 총 1억5000만달러(1800억원)의 자금을 유치했다.

랜시움은 앞으로 텍사스 북서부 애빌린시에 데이터센터를 조성한 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최적 가격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핀테크, 가상 화폐 채굴 등 전력 소모가 많은 고성능 컴퓨터 장비를 운영하는 IT 업체들이 주요 고객이다.

랜시움은 텍사스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선제적으로 값싼 전력을 확보하는 한편, 자체 개발한 전력 관리 소프트웨어인 '랜시움 스마트 리스폰스'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텍사스 전역에 총 951만㎡(약 280만평)의 토지

를 매입, 내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데이터 센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랜시움이 구축한 데이터 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가격이 비싼 시간대에는 전력 소모가 높은 컴퓨팅 장비의 가동을 줄여 남은 전력을 지역 전력망에 판매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한화솔루션은 랜시움의 전력 관리 노하우를 활용, 친환경 에너지 사업 다각화에 나설 방침이다. IT 환경 고도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설립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데이터 센터에 친환경 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한화솔루션은 랜시움 지분 인수를 계기로 IT 기반의 '미래형 에너지 사업자'로의 전환도 가속화한다. 이미 지난해 소프트웨어업체인 미국 '그로잉 에너지 랩스'(젤리)를 인수하고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의 에너지 관리 소프트

웨어 개발 역량을 확보한 바 있다.

이규영 한화솔루션 대표이사는 "재생 에너지 시장이 확대될수록 효과적인 전력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면서 "태양광 분야에서 10년 넘게 쌓은 재생 에너지 사업 역량을 살려 친환경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지난 18일 미국에서 폴리실리콘 공장 두 곳을 운영 중인 노르웨이 상장사 REC실리콘 지분 16.67%를 1억6047만달러(1900억원)에 인수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전지 제조에 원료로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한화솔루션은 미국에서 생산한 폴리실리콘을 활용해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사업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커 호라이즌은 태양광, 풍력,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CCU)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회사에 투자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서울모빌리티쇼, 파주·고양·서울 동시 개최

국내외 10개 업체 18종 차량 공개  
시승·체험행사 등 즐길거리 풍성

오는 26일 개막하는 '2021서울모빌리티쇼'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와 더불어 파주, 서울에서도 동시에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10곳의 완성차업체가 18종의 코리아프리미어(국내 최초 공개 차량)를 선보인다.

24일 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되며 세계 6개국 100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메인 전시장인 킨텍스 제2전시장 9, 10홀에서는 ▲기아 ▲마세라티 ▲메르세데스-벤츠 ▲미니 ▲BMW ▲아우디 ▲이스즈 ▲제네시스 ▲포르쉐 ▲현대차 등 완성차 브랜드 10곳이 부스를 꾸리고 18종의 코리아프리미어를 비롯해 다양한 차량을 선보인다.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을 위한 즐길거리도 풍성하다. 기아·아우디·제네시스



신세계사이언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3개 브랜드는 신차와 전기차를 직접 탑승해 체험할 수 있는 '모빌리티 시승행사'를 운영한다. 신청은 각 브랜드 홈페이지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면 된다.

현대모비스는 전시기간 중 오전과 오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키트를 활용해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직접 만들어보고 체험해볼 수 있는 '주니어공학교실'도 운영한다.

킨텍스 제2전시장 잔디밭에서는 오

는 26~28, 다음달 3~5일 모닥불 축제가 진행된다. 라이브 재즈 공연과 대형 모닥불, 캠핑 텐트, 바비큐, 푸드트럭 등이 준비돼 있어 관람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이다.

파주에서는 신세계사이언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과 함께 관람객들을 위한 팝업 부스와 특별 이벤트가 진행된다. 팝업 부스에는 킨텍스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지프가 참여해 관람객들의 아쉬움을 해소해줄 예정이다.

지프는 '올 뉴 그랜드 체로키 L'과 '랭글러 4xe'를 전시할 예정이다.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에게는 선착순으로 사은품도 증정한다.

서울에서는 동대문구에 위치한 장안평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JAC)에서 다채로운 기획전시와 체험행사를 추진한다. JAC 1층에는 블루샵, 코코넛 사일로, 갓차 등 모빌리티 기업 6곳이 참여해 전시부스를 꾸릴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 현대차, 미래車산업 이끌 인재양성 가속화

'H-모빌리티 클래스' 참가자 모집

현대자동차가 미래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낸다.

현대차는 차량 전동화·자율주행차 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H-모빌리티 클래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H-모빌리티 클래스는 차량 전동화·자율주행 등 미래 자동차 전문 교육 프

로그램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7월 차량 전동화 분야 1기 500명을 시작으로 지난 6월 차량 전동화 분야 2기 500명, 자율주행차 분야 1기 350명 등 1350명의 인원을 선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집을 통해 차량 전동화 분야 350명, 자율주행 분야 350명 등 2022년 상반기 프로그램 참가자 700명을 선발한다. 다음달 10일 오전 10시까지 모집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HW-Q950A 라이프스타일 이미지

## 대우조선해양, 잠수함용 메탄올 개질 플랜트 성공적 인도

방위산업 분야 기술 경쟁력 강화  
메탄올-물 통해 고순도수소 생산

대우조선해양이 방위산업 분야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시흥R&D캠퍼스에서 '잠수함 연료전지용 메탄올 수증기 개질(改質) 플랜트' 인도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인도식에는 국방과학연구소 정진경 부소장, 대우조선해양 중앙연구원장 최동규 전무 등 주요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이 인도한 플랜트는 '잠수함 연료전지용 메탄올 수증기 개질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메탄

올과 물을 통해 고순도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연료전지는 발전 효율이 높고 소음과 진동이 없다. 전기 생산 후 물 외에 별도 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대표적 친환경 발전 장치로 기존 내연기관을 대체할 차세대 동력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여기에 잠수함 연료 개질 기술은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 20년 이상 연구개발에 공들여 온 최첨단 기술이다.

기존 잠수함 연료전지에 필요한 수소 공급은 일반적으로 금속수소저장합금 실린더를 활용했지만 이 방식은 무게당 저장 효율이 낮고 장비 설치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별도 부대설

비가 필요하고 충전 시간도 길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메탄올을 활용한 연료 개질 방식은 저장 효율이 높아 잠함 운용 능력을 향상시킨다. 뿐만 아니라, 장비 설치에 공간 효율이 높고 연료 수급도 용이해진다. 여기에 재충전을 위한 별도 설비도 필요 없고 충전 소요 기간도 짧다.

대우조선해양 중앙연구원 원장 최동규 전무는 "이번 연구과제 수행으로 이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입증했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대한민국의 해군 주권 수호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 삼성전자 사운드바 '몰입감' 글로벌 인정

'HW-Q950A' 등 3개 모델  
AV포럼 최고의 제품 선정

글로벌 사운드바 시장에서 7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삼성전자 사운드바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2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영국 IT 리뷰 전문 매체 'AV포럼'(AVForums)은 삼성 사운드바 3개 모델을 '2021년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했다. 이 매체는 특히 'HW-Q950A' 모델에 대해 "지금까지 출시된 사운드바 가운데 최고의 몰입감을 선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1.4 채널 시스템은 '돌비 애트모스', 'DTS:X'와 같은 서라운

드 사운드에 특화된 오디오 포맷의 이점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며 "현존하는 제품 중 고가의 전문 AV리시버와 스피커 풀 패키지 시스템을 대체할 만한 유일한 사운드바"라고 설명했다.

AV포럼은 TV와 사운드바가 동시에 사운드를 출력하는 'Q-심포니', 음악이 재생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사운드바에 가깝게 댄다면 곧바로 사운드바에서 재생되는 '탭 사운드' 등의 기능도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또한 'HW-Q800A'를 '2021년 최고의 만능 사운드바'로, 'HW-S60A'는 '2021년 최고의 라이프스타일 사운드바'로 각각 선정했다.

/양성운 기자